

박 대통령 범죄 혐의 13개로 늘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특검팀, 총 5개 혐의 추가 적용...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는 '공모자'로 재판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총 13개로 늘어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다. 여기에 특검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이 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개

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

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 측근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특검 조사결과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11일 인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께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특검에 넘긴 바 있다. /뉴스

4.12 재·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도의회의원 14일·원주군의회의원 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전주시제4선거구)는 14일 오후 2시 전주시산수구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원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원주군선거구)는 9일 오후 2시 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사무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후보자 등록절차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달라진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면서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토론회 종료 시간 넘겨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1차 때보다 더욱 열띤 토론으로 상호 신경전을 이어갔다. 먼저 이 시장의 공세가 날카로웠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선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과 '배머드급 캠프'를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사드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시장을 붙여잡으며 방어전에 나섰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사이의 설전이 계속되자, 급기야 안 지사가 "서로 예의를 지키자"며 중재에 나서는 모습마저 연출됐다. 이날 후보자간 열띤 토론에 당초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되기로 한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넘기며 낮 12시20분께 끝났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부터)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이 토론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문에 날 세운李... 安 "동지에 예의 지키자" 이 시장은 시작부터 문 전 대표를 겨냥, "기득권과 손잡아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토론에 돌입하자마자, "법정부담금이 (폐지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법정부담금 15조를 폐지하면 국민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며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을 따져물었다. 문 전 대표가 이에 "법정부담금이 아니라 말씀드렸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사례로 거론하려 하자, "A를 질문하면, A를 답해달라. (최순실) 국정농단이 대체 왜 나오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소한 분리해서 표현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15조원을 폐지하면 국민이 가구당 100만원씩 (세금을) 더 벌었다"고 문 전 대표를 비교했다. 문 전 대표가 이에 발끈하며 해명할 시

간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이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됐다"고 거부하면서 양 측의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 시장은 이후에도 문 전 대표 캠프 소속의 전문철 전 감사원장의 '악성 노조' 발언을 거론한 뒤, "문 전 대표 주변에 기득권자가 엄청 모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전 전 감사원장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모두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이 "국가 지도자의 덕목은 안정감"이라고 주장하자, 문 전 대표가 "이 시장이 안정감을 말하는 게 뜻밖"이라고 응수, 좌중에서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저에게 '불안한 후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정이란 것은 가치와 원칙, 철학에서 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되는 설전에 안 지사가 중재에 나서

기도 했다. 그는 "동지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우리는 민주당의 진보 진영 동지"라며 "재벌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를 진재벌로 보는 것은 동지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깎는다"고 이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文·安, 이재명 '사드 철회' 합공 반면 이 시장은 자신의 '사드 철회' 주장으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았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사드 배치'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국익이라는 건 복합적인 문제고, 사드 배치 자체는 득실이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므로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고 미국, 중국과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이 시장에 일침을 날렸다. 안 지사 또한 이 시장에게 "(이 시장이) 사드 문제가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말을 하셔서 놀랐다.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에 스스로 담혀버린다"며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는 외통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에 "확정적인 발언보다, 현 상태가 위험하다"며 "미국의 군사익 때문에 우리 국가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실제 해결할 길도, 헤어날 길도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의 태도가 애매하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양상"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는 옳지 않다, 차기정부가 노력할테니 임점 논의할 기회를 만들자는 공동입장을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절대 반기 어렵다"며 "G2체제에서 우리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누구 편이냐는 코너에 몰리게 돼 있다. 우리는 몰려선 안 된다"고 즉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는) 치열한 질문 공세 속에서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토론을 이어나가 토론회가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랑했다. 안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동지로서 우애와 동지애를 잃지않는 토론을 만들겠다"며 "긴장됐지만 즐거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토론시간이 분야별로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뉴스

이 "기득권 대연정" 비판 문안 "사드 철회" 합공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이 시장에 일침을 날렸다. 안 지사 또한 이 시장에게 "(이 시장이) 사드 문제가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말을 하셔서 놀랐다.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에 스스로 담혀버린다"며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는 외통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에 "확정적인 발언보다, 현 상태가 위험하다"며 "미국의 군사익 때문에 우리 국가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실제 해결할 길도, 헤어날 길도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의 태도가 애매하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양상"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는 옳지 않다, 차기정부가 노력할테니 임점 논의할 기회를 만들자는 공동입장을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절대 반기 어렵다"며 "G2체제에서 우리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누구 편이냐는 코너에 몰리게 돼 있다. 우리는 몰려선 안 된다"고 즉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는) 치열한 질문 공세 속에서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토론을 이어나가 토론회가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랑했다. 안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동지로서 우애와 동지애를 잃지않는 토론을 만들겠다"며 "긴장됐지만 즐거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토론시간이 분야별로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뉴스

국민의당 도당, 재보궐 선거 준비 박차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3일 오후 제3차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다가올 재보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철 도의원이 임명됐으며, 당규에 따라 위원의 50%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3명으로 꾸려졌다. 이어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진호 도의원이 임명됐으며,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5명으로 이뤄졌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책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도영 도의원이 임명됐으며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선거 준비 조직 구성을 마친 전북 도당은 심기일전하며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진숙 사무처장은 "당헌당규에 의거해서 조직 구성을 마쳤다"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 재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쳐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도당, 지방자치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도당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구호제창 순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10개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일 도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두세훈, 정희안, 변용덕, 김명숙, 장무길, 송만섭이 선임됐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선출받은 당원들이며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최영일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지방자치위원회 발대식은 지방자치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고 모두가 힘을 합쳐 진정한 지방분권을 외친다면 중앙정부가 흔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이 반영되도록 그 선봉에 서자"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력'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